

◆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 일가운동의 특성과 성공 요인 －

일시 : 2002년 11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 제1가나안농군학교(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주최 : 일가기념사업재단

주관 : 일가사상연구소

후원 : 가나안농군학교

◆ 일 정 표 ◆

사회 : 노정혜(서울대 교수)

* 가나안창립 48주년 기념예배 ----- 2:00 - 2:30

인사말 김상원(일가기념사업재단 이사장)

연구발표1 종교개혁부분 ----- 2:40 - 3:20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발표자 : 손봉호(서울대 교수)

토론 ----- 3:20 - 3:40
 좌장 : 유정우(평택대 대학원장)
 토론자 : 고재성(가나안농군학교 기획실장)
 정명운(반송교회 담임목사)

휴식 ----- 3:40 - 3:50

연구발표2 사회운동부분 ----- 3:50 - 4:30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 **일가운동의 특성과 성공 요인**
 발표자 : 김지자(서울교대 교수)

토론 ----- 4:30 - 4:50
 좌장 : 정평림(인하대 교수)
 토론자 : 이상오(주성대학 교수)
 전혜정(호서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4:50 - 5:40
 좌장 : 림영철(일가사상연구소장)

광고 ----- 5:40 - 5:45
 정두채(일가기념사업재단 운영위원장)

리셉션 ----- 5:45 - 7:00

◆ 인 사 말 ◆

오늘 제3회 일가사상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998년에 제1회, 2001년도에 제2회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일가사상세미나는 일가선생의 삶과 정신에 대한 각 분야별 연구를 통해 일가사상을 정립하고 확산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미나가 일가사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물질만능주의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웃, 땅을 사랑하고 함께 잘 살기 원하는 뜻있는 이들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종교개혁자와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선생’입니다. 일가 선생은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신 분으로 선생의 영육생활운동은 신앙인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선생은 일가농민운동, 국민교육운동, 복민운동을 통해 이 민족을 계몽하려고 했던 일가선생의 정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연구해 주신 손봉호 교수님, 김지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맡으신 고재성 박사, 정명운 목사, 이상오 교수, 전해정 교수와 좌장을 맡으신 유정우 원장, 정평림 교수, 림영철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일가선생의 사상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자 먼 길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가사상연구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첫 사업입니다. 일가사상연구소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미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2년 11월 16일

일가기념사업재단 이사장 김 상 원

◆ 목 차 ◆

연구발표1(종교개혁부분)

발 표 : 손봉호(서울대 교수) -----	4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토 론 : 고재성(가나안농군학교 기획실장)-----	14
토 론 : 정명운(부산 반송교회 담임목사)-----	15

연구발표2(사회운동부분)

발 표 : 김지자(서울교대 교수) -----	17
사회운동가로서의 김용기 선생	
- 일가운동의 특성과 성공 요인	
토 론 : 이상오(주성대학 교수) -----	29
토 론 : 전해정(호서대학교 교수) -----	33

◆ 연구발표 1 - 종교개혁부분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

손봉호(서울대 교수)

1. 한국 사회의 선구자

한 사회와 그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는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전의 문화에 의하여 주로 영향받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다 문화와 역사 발전에 동일하게 공헌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만이 역사의 장군일 뿐 대부분은 그 장군을 따르고 장군을 돕는 졸병에 불과하다. 졸병 없이 장군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군 없는 오합지졸은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역사의 장군은 반드시 막강한 권력이나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오히려 졸병들보다 더 많이 고난받고 더 겸손하며 졸병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다. 장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구자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다. 철저한 사명감, 창조적인 비전, 시대와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초인적인 인내와 자기 극복 그리고 설득력 있는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일가 김용기 장로는 오늘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고 우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군이였다. 그가 설계하고 시행한 농민계몽운동이 새마을운동 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방글라데시, 필리핀, 팔레스타인, 미얀마, 중국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설립되었거나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 일가상이 제정되어 수상하는 사람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실, 가나안농군학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육받는다는 사실 등은 아직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여러 나라가 김용기 장로가 제시한 이념과 방법이 자기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받은 농부, 학생, 군인, 회사원, 공무원, 기독교인은 부지기수고 그들은 대부분 다른 종류의 교육에서 받지 못한 충격과 자극을 받고 나왔다. 그 이후 그들의 삶에는 어떤 종류와 정도의 것이든 변화가 있었으며, 그것은 또 그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 이외에도 김장로는 전국 교회, 학교, 단체들에게서 강연하였으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 등 많은 글을 썼다. 그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와 그의 활동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나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자녀들과 제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감화를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2. 일가의 신앙과 종교관

김용기 장로의 모든 창조적인 사상과 희생적인 활동은 전적으로 그의 기독교적 신앙에 근

거해 있었다. 그가 농업을 중요시하는 것도,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도, 자기의 안일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모든 사람의 의식을 바꿔보려고 계몽과 교육에 힘을 기울인 것도, 사회와 종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활동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정당화하였다. 김용기 장로는 농업, 조국,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보낸 분인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은 그의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모로부터 전수된 신앙을 일생동안 한 번도 의심하거나 배반해 본 적이 없으며, 그 신앙에 의식적으로 충실하고 그것을 대변하고 수호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농부라 자칭했지만 때로는 “부흥사”라고도 불렸다.¹⁾ 막사이사이상을 받으면서 한 연설에서 그는 자신을 “나는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한국 땅의 농촌에서 출생하여, 젊어서부터 기독교를 믿어왔으며, 생애를 농업에 바쳐온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농사가 나 개인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이 세계 평화에 공헌하며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²⁾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증거하기를 “모든 인류는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복지사회국가, 즉 예비천국 건설에 총력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보람되이 즐겁게 영접하고 그를 따라 눈물, 탄식, 공포, 걱정, 굶주림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사는 그 길만이 유일무이한 참 살길일 것입니다”³⁾하였다. 기독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주장해 온 근로, 봉사, 희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셨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근로, 봉사, 희생의 이념만이 인류생활의 진리요, 인류평화의 근본임이 확실합니다.”⁴⁾

그러므로 그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 있으며, 그가 우리 사회와 문화발전에 공헌한 것은 동시에 우리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마 김용기 장로가 없었더라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수 있고 사회적 위상도 그렇게 높아지지 못했을 것이다. 김용기 장로야말로 한국 교회가 마음놓고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이며, 한국 사회를 위한 기독교적 공헌을 전형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매우 정통적인 장로교 교리에 충실한 것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믿음대로 살았다. 그는 농장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으며, 하루 일과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났다. 그의 농촌계몽운동과 가나안농군학교 강의는 동시에 전도 강연이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도리를 “완전종교로서의 종교”라 확신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신앙태도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는 신이시다. 그는 부활로써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인간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첫째, 그와 그 영생을 믿는 것이다. 또한 예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고난으로 구속하셨다. 그래서 둘째로 그를 메시아로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 구속의 방법으로 고난의 생활을 겪었다. 그래서 셋째로 그를 생활인으로 믿는 것이다. 이 영생, 구속, 생활의 3대관이야말로 완전 종교로서의 신앙관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외에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

1)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개정판), 규장문화사 1998, 320쪽

2) *가나안으로 가는 길*, 341쪽

3) *가나안으로 가는 길*, 343쪽

4) *가나안으로 가는 길*, 345쪽

을 수는 없다”⁵⁾고 주장하였다.

김장로는 신신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신신학을 기독교 교리들이 “너무 엄격하여 믿기에 힘이 들고 불편하니 쉽고 편리하게 고쳐서 믿자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그러려면 아주 그 종교를 믿지 말고 그보다 쉽고 편리한 종교를 믿거나 아주 아무 종교도 믿지 않으면 될 일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⁶⁾ 신신학에 대한 그의 이해가 충분하고 그의 비판이 공정한 것 같지는 않으나, 그의 신앙적 관점은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는 비판적이었다. 한경직 목사가 정부비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는 “뒤에서 욕하고 홍보는 일은 소인배가 하는 일이다. 또 정부의 잘못이 있을 때 의의 병기를 가지고 강단에서 내려치거나 사회인들이 욕하고 나무랄 때 덩달아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은연중 '나만이 의인이다' 하는 식의 만용을 피우는 것도 소인배의 즐겨하는 짓들이다.... 백척간두에 선 국가의 운명을 눈앞에 보면서 아무도 돌팔매의 대상이 되기를 꺼려하는 때에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팽개치고 이 나라와 이 겨레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지자다운 교훈의 말씀과 사랑의 손길을 펴 보이시는 광경을 언젠가 TV를 통해서 볼 때 나는 평소의 갑절의 존경을 한 목사님에게 돌렸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 길은 한경직 목사님이 걸어오신 발자취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⁷⁾ 한경직 목사와 비슷하게 김용기 장로는 반공, 애국사상이 철저하여 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비판적이었던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

일가 선생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예의바른 태도를 취했다. 그의 여러 가르침으로 보아 다른 종교를 기독교와 동등하게 보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종교를 미신 종교, 불완전 종교, 완전 종교로 분류하는데⁸⁾, 미신 종교와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불교, 유교 등 고등 종교들을 불완전 종교로 분류하는 것 같으나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3.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

자타가 인정하듯 김용기 장로는 우리 나라의 농촌 발전과 농민 계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의 적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와 그 가족의 숭신수범은 농촌 이외의 다른 분야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공헌이 아닌가 한다. 물론 김장로는 종교개혁 그 자체를 운동으로 조직하여 활동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이란 제목은 “농촌운동가로서의 일가선생”과 동일한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해야 할 무엇보다 큰 사명은 종교가 타락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한 것으로⁹⁾ 보아 그가 교회 개혁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종교의

5)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3쪽

6)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2쪽

7) 김병희, *한경직 목사*, 112-114쪽, 김명혁, “목회자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 탄신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2002.10.31) 32쪽에서 재인용.

8)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1쪽

9)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3쪽

개혁이란 원래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로 고쳐놓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믿어온 것을 바로 고쳐 믿자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뜻 그대로 믿자는 것”이라 하였다.¹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정신과 같은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지적하였다.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명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면서 그 근본이며 그 정신이며 생명인 기독교 그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나날이 늘어나고, 교회건물은 나날이 대형화되며, 기도원은 도처에 서고 수천 수만 명이 집회하는 일은 흔하나, 사랑과 희생, 봉사와 몰아의 기독교 정신은 자리잡지 못한다고 하였고¹¹⁾,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에 의하면 7백만 신도 중에 80%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간 곳마다 고약한 냄새를 피우고 제 삼자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¹²⁾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오늘 날 한국의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혐오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¹³⁾.

그가 지적한 이런 잘못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면서 한 번 언급해 본 것과는 다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들이 모두 개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그들이 가진 사상과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을 동반한 지적도 아니다. 그러나 김용기 장로의 비판은 그의 전형적인 사상을 근거로 한 것들이며, 그의 가르침, 그의 삶, 활동에 그의 비판과 그것에 대한 개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비판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의의와 효과를 가졌다 할 수 있다. 그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원칙에 입각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와 힘이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혁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제기한 비판 뿐 아니라 그의 일반적인 가르침, 그의 삶, 그의 활동은 종교, 특히 한국 기독교 개혁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그를 흠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다.

일가선생이 비판한 한국 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미신적 신앙

김용기 장로의 종교비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미신 종교와 고등 종교, 특히 기독교의 미신적 신앙이다. 그리고 그 비판은 일가선생의 전체 삶, 활동, 신앙 사상에서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미신적 기독교 신앙은 일가의 핵심적인 활동과 사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미개인일수록 미신을 많이 숭상하는데, 우리 나라에 미신이 많은 것으로 보아 우리도 꽤 미개민족인 것 같다고 통탄한다. 그는 불교에서도 그와 같은 미신적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명부전이니 칠성각이니 하는 것들이 사찰에 붙어있는 것은 본래의 불교에 없는 미신적 요소란 것이다.

10)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1, 332쪽

11) 김용기,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규장문화사 1992, 306-307쪽.

12) 김용기, *조국이여 안심하라*, 규장문화사, 1980, 108쪽

13)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310쪽

그런데 그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개성이 아니라 기독교의 미신적 요소다. “기도했는데도 어찌 아픈 사람이 낫지 않느냐?”, “연보를 많이 냈는데 왜 농사가 잘 안됐느냐?” “착실히 믿었는데 왜 대학시험에 떨어졌느냐?” 식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가 지적한 미신적인 기독교다. 안수니, 심령불이니, 입신이니, 방언이니 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미신적 신앙이라 한다.¹⁴⁾ 오늘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 부르는 것을 그는 미신적 신앙이라 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잔 재주꾼 정도로 작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고 다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만 들어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니, 안수니, 연보니 하는 것 등으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것이다.¹⁵⁾

특히 그는 기적을 바라는 신앙을 미신적 신앙의 전형으로 보았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시대 완악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지 즐겨하신 것이 아니며, 바울도 방언 같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송이의 백합꽃을 피게 한 것이 앓은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큰 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자연보다 더 신비한 기적은 없으며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한 신비는 없다. 표징이나 기적은 한 번이면 족하고,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행한 바이며, 두 번 이상 넘어가는 기적은 이미 기적이 아니다. 앓은뱅이가 무시로 일어나면 그것을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지 않는다”¹⁶⁾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이용하여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한다. 기독교 신앙을 미신과 혼동케 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게 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도란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라 했다. “기도란 엄밀히 말해서 인간으로서 인간 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죄가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⁷⁾ 다소 일방적인 기도관이긴 하지만, 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히 감사의 기도를 매우 강조한 것으로 보아, 그런 주장은 기도를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미신적 신앙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고 노동과 실전을 강조하는 그의 일관된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복신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그가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철없는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다 들어준다면 이는 자녀를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지적은 매우 적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기적을 바라고 그런 것을 이용하여 전도하고 목회하려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잔 재주꾼으로 만든다는¹⁸⁾ 그의 비판은 그것이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주권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

14)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1-324쪽

15)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4쪽

16)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5쪽

17)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8쪽

18) *조국이며 안심하라*, 113쪽

라 기도, 안수, 연보 등의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는 미신(迷信)으로 격하시켜 자신들의 힘과 이익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섬기고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라 힘을 얻고 지배하려는 마술로 전락한 것이다.¹⁹⁾ 오늘 한국 기독교를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미신적 신앙이라 할 수 있고, 일가 선생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2) 이원론적 신앙

미신적 신앙과 더불어 일가 선생이 많이 비판하는 것은 내세 지향적 종교다. 이 비판은 그는 우선 그런 요소가 우리 나라 불교에 매우 강한 이유를 지적한다. 조선조의 수유억불(崇儒抑佛) 정책 때문에 승려들은 세상을 버리고 산중으로 깊이 들어가 부처를 모시게 되고, 따라서 현세보다는 내세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속세기피 사상과 그에 따른 물질경시 풍조는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끼쳐 우리 나라를 뒤떨어진 비생산국, 후진국으로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업과 가족들을 버리고 산중에다 기도원을 만들어놓고 기도만을 하는 것으로 일삼는 신도들을 만들어 내었다고 지적한다.²⁰⁾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서는 내세만을 중시하고 인간의 현세생활은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고 현세생활도 중시하여,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대로 실천해나가야 하는 것이 개혁이다.”²¹⁾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단지 거기에서 사람이 기도나 올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땀흘려 일하여” 먹고 살면서 “번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만들었다.²²⁾ 완전종교인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신앙태도인데,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방법으로 고난의 생활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구속, 생활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완전 종교로서의 신앙관이라 주장했다.²³⁾ 생활과 관계해서 그는 주장하기를 “산중기도원에 가서 일생 기도만 올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생활한 그 생활관이 없기 때문이다.”²⁴⁾고 하였다. 예수의 그런 생활이 없이는 십자가도, 인류의 구속도, 부활을 통한 영생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현세의 고난생활을 기피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우리는 일가 선생의 일생을 정당화는 그의 전형적인 신앙관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종교는 초월세계만 바라보고 세상일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전하게 생활하면서 노동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인간의 최종목적이 천국에 가는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천국은 산 속이나 교회 안에 앉아 기도만 올려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현세의 생활이 곧 그 준비단계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보다

19)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 판텔레이유 (G. van der Leeuw)는 “종교는 섬기기 위한 것이고, 마술은 지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종교에는 마술적 요소가 많고 특히 기복신앙, 성공신학에는 이런 요소가 다분히 들어 있다.

20)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6-327쪽

21)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1쪽

22)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7쪽

23)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3, 334쪽

24)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4쪽

먼저 ‘생육, 번성,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다”²⁵⁾.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해받기 좋은 발언이지만, 그가 구체적인 생활과 노동을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잘 보여주었고, 한국 교회의 이원론적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심지어 한 불교 단체가 일가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은 일이 있는데, 그 단체는 손에 호미를 들고 있는 석불(石佛)을 세웠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현세를 그림자의 세계로 취급하는 불교 단체가 손에 호미를 든 석불을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그 단체가 기독교인인 일가 선생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은 것은 그가 노동을 얼마나 강조하고 중시했는가가 널리 알려졌음을 증명해 준다. 그가 받은 막사이사이상의 상패에는 “왼손에는 성경을, 오른 손에는 호미를 들고 땅 위에서 십자가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새겨져 있다 한다. 그의 삶의 철학을 가장 잘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근로하지 않아도 천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종교의 교리를 믿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근로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다는 그 병든 정신과 같다. 불로소득, 즉 노력없이 얻으려는 것은 가도의 행위이다. 예수님도 노동하셨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손에 로마 병정들이 박은 못자국만 알고, 노동을 해서 생긴 못자국은 모르니까 세상이 안 따른다”²⁶⁾는 말에서 그의 노동관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삶 그 자체가 곧 신앙생활이며 기도생활이었다. “...사람은 그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생활로써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시켜 하는 최대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니, 마땅히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충실히 생활해야 하며 늘 마음속으로 그 생활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 생활 속의 기도는 어느 산중이나 골방 속에서의 특별기도나 어느 예배에서의 공식기도보다 더 큰 기도가 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생활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그것이 곧 신앙 생활이 아니겠는가?”²⁷⁾

신앙의 생활화는 일찍이 칼빈이 강조한 것이며 네델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 카이퍼(Abraham Kuyper)가 가장 강조한 것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교회뿐 아니라 국가, 가정, 학교 등 모든 기관을 주관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서 (coram Deo) 해야 하며 그를 위하여 해야 할 것이다.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보내는 8시간, 즉 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하는 그 8시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보낸다면,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의 생활은 종교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한국 교회의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가 선생이 비판한 이원론적, 내세중심의 신앙이 아닌가 한다.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주일, 교회에서, 혹은 중대한 사건이 나거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작용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은 삶에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사치 정도로 취급받게 되고 말았다. 생활과 유리된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없다. 일가가 가르친 신

25)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8쪽

26) *가나안으로 가는 길*, 296쪽

27) *가나안으로 가는 길*, 329쪽

양생활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절대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에 가장 충실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세속주의

내세를 위하여 현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중시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는 “기독교를 시대의 조류와 시대의 감각에 맞추어 믿자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²⁸⁾ 기독교가 시대의 상황과 무관하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와 감각에 맞추어 믿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그의 활동과 강의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중시하는 구체적인 일상 생활은 결코 이 세상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가 생활을 중시하는 근거를 구속의 방법으로서의 예수님의 생활에서 찾는 것을 보면 그 생활은 오히려 고난을 특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속한 것은 그러한 안일한 육적인 생활로써 한 것이 아니다. 고난과 희생의 영적 생활로써 구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생활은 근로, 봉사,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말구유간에 인간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박힐 때까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일을 ‘근로, 봉사, 희생’으로 모두 겪으셨다.”²⁹⁾ 근로, 봉사, 희생은 바로 그 일생을 가장 잘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의식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가 신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보다는 기독교를 너무 “쉽고 편리하게 고쳐서 믿자는” 것 때문이다.³⁰⁾ 그는 그런 신앙을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으로 본 것 같다. 세속의 반대는 종교라 하고 종교생활은 세속생활보다 힘들다고 하였다. “새옷은 헌옷보다 입기에 거북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헌옷보다 새옷을 요구한다. 종교생활은 세속생활보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종교인은 그 불편한 종교생활을 원하는 것이다. 새옷이 헌옷보다 좋고 종교생활이 세속생활보다 좋기 때문이다.”³¹⁾

그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힘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일하여 먹는 것이 놀고먹는 것보다,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례한 것보다 힘들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천국에 가는 일은 더 힘든 일이다. ...덕이 부도덕보다 행하기 어렵고 선이 악보다도 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것이 사람이 바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종교란 사람에게 바로 살길을 인도하는 것이다.”³²⁾

물론 힘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가 종교의 전부가 아님은 분명하다. 노동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가 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생도 달게 받고 힘들게 일하는 것이 희생이고, 희생 없이는 진정한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그것을 가장 잘

28)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2쪽

29)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4쪽

30)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2쪽

31)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3쪽

32) 가나안으로 가는 길, 332쪽

보여 주었다. 희생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나는 여기서 오늘의 기독교 신자가 근로와 봉사와 사랑을 얼마나 이웃과 나라를 위해 바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신자의 도리를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 묻게 된다”³³⁾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꾸짖는다. 세계 제일의 웅장한 교회건물, 풍부한 물량, 부흥회, 병고치는 기적이 희생의 정신을 표상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5.16 광장에서 백만이 넘는 집회가 열리고 4억 내지 5억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 “이 엄청난 돈을 행사만 끝나면 잊어버리는 모임에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느끼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은혜를 입었으니 이쪽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결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었다.³⁴⁾ 그리고 “겉꾸밈을 잘 하고 숫자 늘리는 데만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차고 진실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훈계했다.³⁵⁾

힘들게 일하려 하지 않고, 일해서 남을 섬기지 않으려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태도며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짓고 대중집회를 열어 세력을 과시하는 것도 이 세상의 논리에 따른 것이지 십자가의 논리를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도 세속주의라 할 수 있다. “교회건물이 아무리 높고 커진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교회마다 자가용 버스를 구입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인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나안의 가규에는 모든 생활을 검약하여 그 여분으로 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의 한 근본을 가규로 삼은 것이다.”³⁶⁾ 가나안 농군학교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검소절제는 결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자원과 환경을 보존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그는 신자확보와 교세확장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서 생겨나는 시기와 상호비난,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는 인기위주의 설교,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기적의 강조 등을 지적하고 모두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사랑과 희생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³⁷⁾ 우선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 같으나, 거기도 역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힘을 키우려는 것이고, 따라서 세속주의라 비판할 수 있다.

맺는 말

김용기 장로는 교회개혁을 위하여 어떤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존 교회를 매우 중요시했고 교역자를 매우 존경했다. 어디에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정치개혁과 달리 제도를 바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신앙을 회복함으로 가능함을 그는 알았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는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이런 모습은 김용기 장로의 개혁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 그의 비판, 특히 그의 철저한 신앙과 근로, 봉사, 희생의

33)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312쪽

34)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312쪽

35) 조국이며 안심하라, 111쪽

36)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315쪽

37)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315쪽

신앙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한국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고, 신앙생활과 교회를 건전하게 바꾸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 특히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받은 수많은 교회들과 교역자들에게 끼친 직접적인 감화는 엄청난 개혁적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농촌, 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내한 힘든 노동,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개혁적 의의를 가졌다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종교, 특히 기독교는 말은 많이 하고 과시도 많이 하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많이 바라고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향유하고 향락하는데 주력할 뿐 주는데 인색하다. 바리새인들의 경우나 조선 조 말기의 유교가 보여주듯, 종교의 타락은 바로 이런 이중성에서 드러난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만, 별로 고쳐지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치지 않고 회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런 이중성은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장로는 말만의 교육이 전혀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의 교육은 철저히 실천으로 이뤄졌다.³⁸⁾ 그런 점에서 김용기 장로는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그를 기리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건전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용기 장로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말만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38)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우리 살림집을 농군학교로 만들어 우리 온 가족이 사는 생활을 직접 보여 주면서 하는 교육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김용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창조사, 1978, 347쪽

◆ 종교개혁부분 토론 자료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고재성(가나안농군학교 기획실장)

손봉호 교수님의 종교개혁가로서 일가선생에 대한 연구는 일가선생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요약:

첫째는 기복 신앙으로 흐르는 미신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다.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지상주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배척되었다. 밑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아닌 위로부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였다.

둘째는 내세지향적인 이원론 신앙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개신교, 그것도 칼비니즘에 처음 나타난 내세 도피형이 아닌 세상개혁의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를 이룬다고 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으나 아직 내세지향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일가선생은 바로 이런 청교도적인 기독교의 변화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실천하는 노동의 의미가 기도의 연장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연장으로 승화시키고 실천하였다.

셋째는 일 안하고 편하게 살려는 세속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기독교의 지역문화에 대한 상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가선생은 값진 복음은 고난과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가선생은 종교제도나 틀을 새로 바꾼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알고 또는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본보기로 근로, 봉사, 희생을 통해서 복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 쉬운 비판 이전에 힘든 실천을 먼저 하면서 몸소 복음대로 살려고 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겉으로 보이지는 않을 지라도 속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 토론을 위한 문제제기

우리사회는 주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삶의 중심이 노동에서 노동하지 않는 시간 - 통상여가로 표현 - 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의 교회실천과 교회에서 적용되는 신학들은 60년대 이후에 노동과 이에 대한 영적 정당성의 역할을 해왔다. 가나안 농군학교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가사회에서 쉼에 대한 일가선생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 종교개혁부분 토론 자료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 선생

정명운(부산 반송교회 담임목사)

비텐베르그대학의 성서신학의 교수였던 마틴루터(Martin Luther)는 1517년 10월 31일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불법에 반대하여 비텐베르그대학 교회 정문게시판에다 95개조항의문을 붙여 놓으므로써 역사적인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은 비단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개혁 한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시도되었고 이후에도 시도되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개혁을 비롯해서 분열왕국시대 남유다의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 북이스라엘의 예후 등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일가선생은 종교개혁의 흐름이 암울했던 일제시대를 거쳐 1946년 삼각산농장 개간과 1952년 5월 에덴향 개간, 1955년 가나안농장 5개년 계획을 세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만들기 위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황무지를 찾아다니며 옥토를 일구고 황폐해진 정신과 잘못 가르친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했다. 일가선생은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을 막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것과 한국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고 우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군이였다. 이 부분에 대해 손교수님이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을 평가한 부분은 통찰력이 넘치는 표현이다.

무엇보다 이 논문에서 돋보인 것은 일가의 생애 가운데 종교가 타락하는 것을 막는 길을 종교개혁으로 본 것과 종교개혁이란 원래의 종교를 바꾸어 다른 종교로 고쳐 놓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 믿어 온 것을 바로 고쳐 믿자는 것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믿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뜻 그대로 믿자는 것이다. 이것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과 같은 것으로 평가한 부분이다.

일가선생의 기독교를 향한 비판은 그의 전형적인 사상을 근거로 한 것들이며 그의 가르침, 삶, 활동은 그의 비판과 그것에 대한 개혁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실천하는 원칙에 입각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위와 힘이 있고 실질적인 개혁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의 무게를 실어 주는 부분이다.

손교수님은 논문에서 일가선생이 평소 종교인이 해야하는 큰 사명은 종교가 타락하는 것을 막는 일이기에 교회 개혁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평소 개혁되어야 할 한국기독교를 3가지 차원에서 보았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미신적 신앙이며 둘째는 이원론적 신앙, 셋째 세속주의이다.

일가선생의 종교비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미신종교, 특히 기독교의 미신적 신앙이다. 그리고

이 비판은 일가선생의 전체 삶, 활동, 신앙사상에 우러난 것이라고 지적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손교수님은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가선생이 비판한 이원론적 내세중심의 신앙이란 점이다. 즉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가선생의

신신학을 비판하는 것은 손교수님이 지적한대로 잘못된 교리보다는 기독교를 너무 쉽고 편리하게 고쳐서 믿자는 것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 신앙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손교수님의 지적대로 일가선생은 교회개혁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가선생의 개혁은 한국교회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고 신앙생활과 교회를 건전하게 바꾸는데 큰 자극이 되었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가선생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매우 귀중한 자원이라고 평가한 손교수님의 논문은 대단히 새로운 해석이자 탁월한 표현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로서 일가선생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평소 일가선생이 외쳤던 생활현장을 보면 우리의 윤리, 즉 도덕이 개혁되어야 할 것을 언급 하셨다.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바로 신발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이다.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은 그것을 제거하기까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은 비가나안 요소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가나안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 비가나안 요소, 윤리적인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로서 일가선생을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손교수님의 논문에서 옥에 티라고 한다면 성경적 접근이 있으면 하는 점이다. 평소 일가선생도 한 손에 성경을 드시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셨고 개혁하셨기 때문이다.

논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자로서의 일가선생을 깨닫게 해주신 손봉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구발표 2 - 사회운동부분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일가 운동의 특성과 성공 요인-

김지자(서울교대 교수)

1. 들어가며

일가 김용기 선생은 일제시대에는 투철한 농민의식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며 조국 광복에 애쓰셨고, 해방 후에는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 교육운동, 신앙의 생활화운동에 온 생애를 바치셨다. 한반도의 수난기에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일깨우고, 불굴의 개척정신과 숭선 수범하는 근로정신으로 민족의 정신개혁과 생활개혁을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가르치셨다. 선생은 대한민국이 낳은 영원한 사표이며 사회운동가이셨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남게 되었다. 그러기에 일가 선생이 떠나신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선생의 사상을 기리는 일련의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이제 그 세 번째 세미나에서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 속에서 오늘과 같은 기회가 부족한 본인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도 송구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 기회는 일가 선생의 가르침을 좀더 깊이 탐구하고 재음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나태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접하여 보지 못하였던 귀한 가르침들을 새로이 배우고 깨닫는 말할 수 없는 좋은 시간들을 누리게 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베풀어 준 일가기념사업재단과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인은 한국농민교육협회의 결성을 계기로 1970년대 중반 일가 선생님을 처음 뵈고 특강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 본 이래 몇 차례 일가 선생님을 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그 중에도 원주 신림의 제2가나안 농군학교를 단체로 방문하였을 때 선생님이 손수 설명해 주시던 세 가지 삶의 원칙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다. 신림동산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그 설계에서 산 위쪽으로는 기도와 예배를 위한 시설들을, 산의 중허리에 교육장을, 그리고 산의 아랫부분에는 과수원과 농장을 배치하여 농군학교의 기본정신과 목적을 살리고자 하였다는 말씀이셨다. 선생이 새벽 4시면 울리던 개척의 종소리와 함께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우선으로 삼고, 산 중턱의 교육장을 통하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정신개혁과 인격의 도야를, 그리고 산아래 농장을 통하여 손발을 걷어 부치고 농사에 뛰어 들어 농토를 가꾸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므로 제대로 애국하고 섬기는 근로, 봉사, 희생의 값진 교육을 체험을 통해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농사 즉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손수 실천으로 보여주신 일가 선생이야말로, 아랫것들을 시켜서 하는 양반식의 농사가 아니라 손수 해내고 보여주는 진정한 농민으로서의 참 농사군의 모습을 지켜온 어른으로서 가히 민족의 사표가 되어 왔었다. 그렇지만 막상 일가 선생의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온 바가 없었던 필자는 이번의 발표가 일개월여의 짧은 기간 내에 준비를 하여야 하는 긴박성으로 인하여 적지 아니 고생을 하였다. 따라서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의 진면목을 수박 겉을 훑는 식으로 섭렵하여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본 글을 내 놓을 수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부끄러운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지만 비록 이 논문이 선생의 생애와 사상 가운데에서 비록 어느 한 구석을 살짝 긁어 본 것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 발표를 듣는 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오히려 더 큰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글은 먼저 일가 선생의 사회운동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사회운동의 개념과 일가 사회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일가 선생의 전 생애를 통하여 드러난 사회운동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운동의 정의와 사회운동가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운동은 무엇이며 사회운동가는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학자 알랭 뚜렌느(Alain Touraine, 1965)³⁹⁾는 사회운동을 일컬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고자 하여 이루어진 단합된 노력(Collective effort)이라 정의하였고, 로버타 애쉬(Roberta Ash, 1972)⁴⁰⁾는 특정 사회의 이데올로기나 사회구조를 변화 또는 개조시켜 보려는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 취해지는 태도 및 자의적(self-conscious)인 행동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랄프 터너(Ralph H. Turner)⁴¹⁾는 사회운동이 기존사회의 구조나 이데올로기를 변화 또는 개조시키려는 노력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변화나 개조가 그릇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 보고자 이루어지는 집단노력으로 보기도 하였다(이흥탁, 1981)⁴²⁾. 새 우리말 큰 사전에서 사회운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로 정의하였고, 미국의 타로우(Tarrow, 1994)⁴³⁾는 사회운동을 “주민들이 공동목표와 강한 결속을 가지고 소수정예, 반대론자, 관계 당국과 지속적인 유대를 맺으면서 벌이는 집단적 도전행동”이라 표현하여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Goreham, ed. 1997)⁴⁴⁾. 따라서 사회운동이란 좁건 넓건 간에 일정한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어려운 처지나 문제에 봉착해 있는 집단에게 활력을 주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그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투철한 철학이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대중의 의식을 개조하는 일로부터 그에 따르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공동 및 협동적 실천행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회운동들이 전개되어 왔고 또 전개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운동들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기도 하다. 이들 사회운동은 그 전개하는 목적과 대상 형태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집단이나 조직들의 성격여부에 따라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목격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분류하여 유형화하기도 하는데, 비교적 치밀한 조직이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회운동

39) Alain Touraine, *Sociologie de L'Action*, Paris (1965)

40) Roberta Ash, *Social Movements in America*, Chicago(1972)

41) Ralph H. Turner & Lewis M. Killian, *Collective Behavior*, Englewood, Cliffs(1957)

42) 이흥탁, 「사회학원론: 사회학의 제 이론 및 방법」, 법문사, 1981:675-682.

43) Sydney Tarrow,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4)

44) Gary A. Goreham, ed., *Encyclopedia of rural America: The land and people. Volume 2*. Santa Barbara, CA: ABC-CLIO Inc.(1997)

을 일반사회운동으로, 개혁이나 혁명을 목적으로 하여 확고한 조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을 특수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종교적 운동이나 사회적 유행 등과 같이 특수하게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사회운동을 표출적인 사회운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운동은 또 그 전개과정에서 개인의 생애주기와의 유사하게 일련의 주기를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주기는 운동이 태동하고, 성장하고, 확산되고, 그리고 조직화 혹은 제도화의 단계를 거친다. 물론 모든 사회운동이 이러한 주기와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회운동은 확산되고 조직화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로부터 합법적인 사회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와해되거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운동으로 변모해 버리는 수도 많다. 또 한때는 성공적으로 전개되던 사회운동이 원래 목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운동으로 변모하여 종국에 가서는 사회운동의 성격조차 잃고 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흔히 사회운동이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덧입어 놀라운 세를 형성하며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 운동이 단순한 정치적 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이 될 경우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즉시 중단되어 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 사회운동이 그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운동가의 신념과 헌신과 지도력과 역량에 따라 처음에는 별 기세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그 운동의 진면목이 인정이 되게 되면 그 파장은 끊임없이 확산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운동은 비록 그 운동의 창시자가 살아 움직이는 기간뿐 아니라 그의 사후에까지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영향력이 계속되어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가의 사상이나 가르침은 문학이나 예술을 통하여, 또는 학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통하여 시간을 두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미르 공동체운동(MIR)⁴⁵⁾이나, 대 문호 톨스토이의 농촌문화운동⁴⁶⁾, 인도의 지도자 간디의 비폭력운동,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트비히(N.F.S. Grundvig)의 자유주의적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고등학교 운동⁴⁷⁾,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나 일가 선생의 가나안 복민운동 등은 비교적 오랜 동안 영향력을 미쳐온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예다.

사회운동이란 이러한 사회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건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그 운동의 창시자거나, 이러한 운동의 목적과 추진과정에 공감하여 그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들이며 생애를 그 운동을 일으키고 확산시키며 이끌어 가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운동가의 신념과 철학, 동지들을 규합하고 움직이는 설득력과 호소력, 그리고 그의 계획과 주장을 실천으로 옮기는 속성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운동가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벌여온 사회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그 사회운동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45) 온누리교회 21세기 청년부, “러시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 성 세르기우스를 중심으로”,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제 1회 온누리 청년 포럼 자료집, 16-29쪽

46) 로망 롤랑, 「톨스토이의 생활과 문학」, 정음사, 1973

47) Helge Bekke Hansen, "The Danish Folkehojskole" 2002 경기도평생학습축제 국제학술심포지엄, 광명시 평생학습원 제공.

3. 일가 사회운동의 특성

일가 선생의 사회운동은 그 시작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차 운동의 범위 및 대상 집단들이 확대되어 왔고 그 성격과 운동의 추진전략도 많이 달라져 오고 있다. 사실상 일가 선생은 두 내외가 황무지의 개간을 시작한 이래 전 가족이 중심이 되어 농사를 통한 나라사랑운동, 일제의 식민 정책에 항거하는 광복운동, 이상촌의 건설 및 황무지의 개간을 통한 농사개량 및 생활개선운동, 그리고 가나안 농장 및 가나안농군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군 및 농군사관생도의 육성운동,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벌여온 온 국민 의식개혁운동, 생활개혁운동, 인격혁명운동, 그리고 농민 학생 군인 기업체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과 해외로부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개혁 운동 및 복민사상의 전파 운동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성격의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제반 운동들은 그 전개 시기와 운동의 전개 지역 및 그 주요 대상 집단,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대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사회운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촌의 건설과 황무지의 개간을 통한 농사꾼으로서 직접 과학적인 영농사업을 벌이며 농민의 거둬나기를 부르짖은 사회운동을 농민운동의 시기로 볼 수 있고(이만열)⁴⁸⁾, 1962년 제1 가나안 농군학교의 설립에서 1973년 제2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면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과 생활개선을 가르치던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Folk High School)의 사회교육을 방불케 하였던 가나안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회운동을 국민교육운동의 시기로(황종건)⁴⁹⁾, 그리고 일가 선생의 신앙을 바탕으로 가나안 복민 사상을 국내로부터 해외에 이르기 까지 각계로 전파하고자 그 운동의 화동의 장을 해외로까지 번져가게 되는 복민운동의 시기(한규무)⁵⁰⁾로 크게 분류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결코 하나의 운동이 쇠퇴하고 다른 운동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의 폭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연속적인 현상으로서 일가 사회운동의 나선형적인 확산적 발전주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일가 사회운동의 세 가지 모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가 농민운동

일가 선생의 농민운동은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농사꾼이 되자는 운동이었다. 특히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언을 존중해온 일가 선생은 농사야 말로 산업의 원동력이라 믿었고, 지식인일 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를 천직으로 하는 농사꾼으로 지냈었다. 일가 선생은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민들만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명 등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일인들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려면 경제자립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려면 지식인들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증산하여야 하며 종자를 개량하고 토질을 개량하고 영농방법을 개량하여 이윤이 많이 남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⁵¹⁾. 일가 선생은 특히 세

48) 이만열, 1998, “한국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일가 김용기 선생의 10주기 세미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6-20

49) 황종건,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타고르와의 비교”,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일가기념사업재단, 2001:84-96

50) 한규무,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일가 김용기선생 10주기 세미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1998:21-31

51) 이만열, 전게서, 1998:8

상 사람들이 농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인식들 즉 “농사는 이윤이 적다느니, 힘이 들어 못 할 것이라느니, 희망이 없는 직업이라느니, 농사꾼은 천대받는다느니, 우매해진다느니 하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손수 그리고 그 일가족이 몸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여 주면서 농민들을 깨우치는 운동을 펼쳐 왔다. 일가 선생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농업에 대한 천시 풍조와 일제의 수탈, 6·25로 인하여 황폐화한 농토를 개간하여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토양에 맞는 과수며 축산 그 밖의 신용 협동조합의 결성 등을 통한 성공적인 이상촌을 이룩해 보여줌으로써, 이를 보고 배우고자 찾아오는 농민들을 지도하면서 농사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꿈을 갖고 돌아가 나라를 살리는 농군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농군 사관생도가 되도록 농민운동을 벌여 왔다. 일가 선생의 농장은 그 실현가능성을 직접 찾아와 목격하고 이에 감명을 받을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하는 국면과 10가촌의 이상촌을 건설하여 협동촌락을 건설하고 계획적인 토지의 개간에 의한 과수며 새로운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함에 의해 농민들이 벌이는 농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농민운동은 세 차례나 농토를 바꾸어 가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일가 선생의 농민운동은 한때 이상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 덴마크와 같은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 하여 “농민은 한데 모여 이상촌을 건설하자”는 구호를 내 걸고 전국적인 농민동맹을 조직하여 조직적인 운동을 벌이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좌익계의 조직인 농민조합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이만열, 1998:12)⁵²⁾, 일제가 동양척식회사로 하여금 토지소유 및 경작권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벌어진 각가지 소작쟁의나 농업 생산력 증강에만 연연하던 다른 농민운동들과 달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을 강조하고 농사꾼을 양성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귀농을 강조한 점이 일가 농민운동의 특징으로 평가하였다.⁵³⁾

2) 일가 국민교육운동

일가 선생의 두 번째 단계의 사회운동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중심으로 한 평생/사회 교육운동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평생/사회교육 운동은 특히 덴마크의 국민교육운동을 대표하는 국민고등학교(Danish Folk High School)의 정신과 교육 방법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 집단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⁵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는 1844년 그룬드비히(Niklaj Frederik Severin Grundvig)가 최초로 창설하였던 것이 오늘날은 덴마크 국내에만 85개의 국민고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곳에서 교육을 받는 성인과 청소년들이 해마다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고등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이 되는 비정규사회교육기관(Nonformal Education Institute)으로서 17.5세 이상의 청소년 혹은 성인이면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이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 짧게는 한 주간으로부터 길게는 10개월간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국민고등학교의 특징 하나는 누구든지 이 학교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루 24시간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완전 기숙제의 학교공동체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 이 학교는 마치 하나의 작은 지역사회와 같고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같은 구내

52) 이만열, 전계서, 2001:12

53) 상계서, p.19

54) 김성오 역, “삶을 배우는 학교”, 평생학습의 발원지 덴마크에서 배운다: 대상의 변화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2002 경기도 평생교육축제, 국제학술심포지엄, 2002:58-69

혹은 학교의 근처에서 그들의 가족이 다 함께 생활을 하며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 국민고등학교에서는 결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강의가 덴마크어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덴마크어가 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국을 방문한 올덴 국민고등학교 교장 한센씨는 밝혔다 (Hansen)⁵⁵⁾.

일가 선생의 본격적인 국민교육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1962년 가나안 농장 안에 세워진 가나안 농군학교와 1973년 강원도 원성군 신림동산에 세워진 제2 가나안 농군학교는 한국판 국민고등학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처음에는 국토를 지키는 삼군(육·해·공군) 이외에 가난을 몰아내는 군대 즉 농민을 양성하는 농군의 학교로 시작이 되었다. 일가 가족의 개인 방에서 시작된 농군학교는 살림방이 교실이고 식구들이 교사였다. 교육은 정신교육과 기술의 습득으로 기간은 15일이라는 단기간의 합숙 교육으로 노트나 교과서가 없는 체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바탕을 둔 교육이었다(오명도)⁵⁶⁾, 이 기간 동안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 만드는 법·농산물가공법·농촌의 생활개선·황무지 개척법·이상촌 건설법·과수재배법·축산법·일반농업기술·모범농가 창설법·음악·체육·육아법·종교학·회의진행법·민법”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은 초기에는 농민들이 주 대상이었으나 점차 전 국민으로 확산 되어갔다. 군인, 대학생, 종교지도자,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등 성별·학력·직업·종교에 관계없이 뜻이 있는 모든 국민이 그 교육의 대상이 되어 가나안 정규교육과 특수교육을 받았다(한규무)⁵⁷⁾.

가나안농군학교의 특수교육 과정은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직업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민정신교육과정으로서 일가 선생의 국민교육운동의 핵심을 이루게 된 일가 특유의 인성교육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 이외에도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체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의뢰한 연수생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개교 이래 3-40년간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수하여 괄목할만한 기록이 되고 있다. 김기석 교수는 한 사회교육기관에서 20여 년 동안 같은 과정을 1000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기술하고 이를 제2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실시한 교육과정까지 합쳐 볼 경우 1500회가 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김기석)⁵⁸⁾.

한편 일가선생의 정신교육은 1970년대 정부가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이 꽃을 피우게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박진환)⁵⁹⁾ 가나안 농군학교에서의 교육 형식과 내용도 정부주도 국민정신교육인 새마을 교육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55) Hansen, op.cit, 2002

56) 오명도, “가난을 몰아내는 군대양성” 일가강좌 개설을 위한 Group Study:제1권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일가기념사업재단 운영위원회 연구교육분과, 2002

57) 한규무, 1998, “북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일가 김용기선생의 10주기 세미나: 일가

김용기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21-31

58) 김기석, 1998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일가 김용기선생의

10주기세미나: 일가 김용기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32-44

59) 박진환,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가나안 농군학교와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일가기념사업재단, 2001:4-77

3) 일가 복민 운동

일가 선생의 사회운동은 그 기저에 흐르는 복민주의 복민정신이 끊임없이 구현되어 온 연속적인 운동이었다. 일가 선생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구원받은 복민들이 그들의 약속된 땅, 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면서 축복된 삶을 더불어 누리는 이상촌 즉 에덴향을 건설하자는 운동이었다. 그의 일생을 통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현되어온 일가의 신앙과 정신은 그의 평생에 봉안 이상촌으로부터 에덴향, 가나안농원, 가나안농군학교, 그리고 가나안 복민회관, 가나안 복민주의로 연결이 되어 서로 떼어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비록 복민주의나 복민사상이 1970년대까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았었다고 한 한규무 교수(1998:21)도 봉안이상촌 건설은 복민운동의 첫 사업이었다고 한 「참살길 여기 있다」(338쪽)와, 일가 선생이 나는 40여년을 그 운동을 해온 사람이었다고 한, 「그분의 말씀 따라」(136쪽)를 인용하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한 김용기의 활동전부를 복민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⁶⁰⁾. 김기석 교수는 “황무지 개척이란 그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강인한 정신력과 헌신이 요청된다. 이를테면 근검과 절약을 철저히 생활화하여야 하며, 농업노동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마음 자세가 요청된다. 서양 개신교 청교도들처럼, 직업을 일종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신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려는 확고한 정신적 결단이 필요하였다. 일가 가계의 신앙계보나 초기 개종과정 살펴보면 일가의 신앙은 개신교 가운데 청교도적 신앙을 견지하는 선교사들과의 교섭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일가는 일종의 토착 청교도였다. 그는 또한 그러한 신앙노선의 생활화를 강조하여 생산노동은 물론 가정생활과 사생활에서까지 그것을 철저히 실천하였다”고 복민운동을 기술하고 있다(김기석)⁶¹⁾. 여기에서 나타난 복민사상은 기독교의 복음에 기반을 둔 정신교육으로 유무상통의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고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청교도적인 신앙과 윤리에 바탕을 두고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정신적인 근거로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민 정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복민 운동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이를 한규무 교수는 막사이사이 상(Magsaysay Award)을 탄 이후 가나안 교육의 명성이 국내외로 알려진 후, 그로부터 배우고자 몰려오는 외국인이 늘어 복민훈련원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직자와 대학생, 중·고등학생과 교회청년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농군사관학교의 개설을 통하여 농촌의 지도력 양성에 주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복민운동의 출현 시기를 이 때로 보았다(한규무)⁶²⁾.

일가 선생의 복민 운동은 오히려 선생의 사후에 보다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일가 선생을 아끼고 또 그 운동에 동참하여 오던 동지 및 후손들이 선생의 평생에 걸친 사회운동의 기본 정신과 이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구어져온 일가 선생의 사회운동을 하나의 사상으로 엮어 보려는 움직임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60) 한규무, 전계서, 1998:21

61) 김기석, 전계서, 1998:41

62) 한규무, 전계서, 1998:28

4. 일가 사회운동의 성공 요인

사회교육가적 입장에서 일가선생의 생애를 고찰한 황종건 교수는 특히 봉안 이상촌에서의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이란 차원에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Santiniketan의 Visa Barati와의 유사성을 비교하며 일가선생의 민족을 이끌어 가는 교육자적 품성을 찬양한 바 있다⁶³⁾. 1936년 봉안 이상촌의 건설로부터 다섯 차례의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보여준 실패와 성공.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노력한 그의 삶과 운동을 통하여 변함없이 지켜온 핵심사상. 따라서 선생의 사회운동가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평생토록 삶의 원칙으로 삼아온 소명의식과 기본 철학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분이 벌여온 사회운동의 성격과 방향, 그리고 그러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오는데 특별히 활용된 방법 내지는 운동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선생의 생활신조와 생활철학

1929년 19살의 나이에 광동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탐색하던 일가 선생은 당시 외면당하고 있던 농업에 눈을 돌리면서 농촌을 살리는 운동을 애국의 운동으로 삼아 그의 생애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결단이 서기까지는 그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적 신앙과 흠을 사랑하는 “농사꾼”이 되라 하신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만일 방공 애국 애족의 삶의 길을 택하게 “민족구원의 대도를 걸어라”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가상 시상식, 2002)⁶⁴⁾.

일가 선생의 생활 신조를 집어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과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삶 그리고 농촌을 살리고 성공적인 농사로 복지농촌을 일구는 농사꾼이 생활의 신조였다.

농업을 살리고 이상촌을 건설하여 덴마크와 같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다섯 차례나 황무지를 손수 개간한 일가 선생은 가난한 복민 사상을 기반으로 한국의 국민들의 의식혁명, 생활혁명, 인격혁명으로서, 근로 봉사 희생의 기본 이념과 정신, 그리고 정직 절제의 겸소한 생활정신으로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삶을 역시 일생의 생활철학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일가 선생을 안병욱 교수는 “한 손에 성서를 쥐고,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머리에는 애국의 면류관을 쓰고, 허리에 겸손의 띠를 두르고, 발에는 개척의 신을 신고, 복지한국의 건설을 위하여 80평생을 살다가 김용기 선생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보배요, 민족의 밝은 등불이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안병욱)⁶⁵⁾.

끊임없는 개척정신으로 황무지를 구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냄으로써 농촌 개간의 선구자로서 수많은 농민들에게 농사가 최상의 직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기도 한 일가 선생은 개척자는 한 곳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새로운 불모지를 찾아 개간을 계속하였으며, 절망상태에 빠져있던 농민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며 창씨개명이나 신사참배 교회에서의 예배 전에 하라고 요구되는 국민의례를 거부한 일 등을 통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가적 기개를 보여 주었다(김용기, 1989:114)⁶⁶⁾. 창씨개명을 하지 않아 국민학교에

63) 황종건, 전계서, 2001:90-95

64) 제12회 일가상 시상식, 전계서, 2002:26

65) 안병욱, 전계서, 1994:77

다니던 큰아들이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고, 신사참배와 국민의례의 거부로 경찰서에 끌려가 발길로 채이고 얻어맞기도 하였으나 끝내 본인의 성명을 그대로 가지고 신사참배며 국민의례, 묵도라는 것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8·15 를 맞았다고 회고하고 있다(김용기,1989)⁶⁷⁾ 그러나 국민의례와 신사참배를 거의 합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본인을 설득한 이야기와, 일본 총독부의 구리쇠 울타리가 전쟁무기 제작용으로 철거되고 곳곳의 동상들이 철거되면서 전국의 각 교회에서 사용하던 종을 떼어가던 때에, 일가 선생이 놀라운 기지로 교회의 종 대신 밥그릇을 내어놓기도 한 에피소드 등은 일가 선생이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과 배짱, 그리고 놀라운 언어적 소질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일면이었다. 농산물의 공출에 반대하여 공출을 해야 하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공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밭농사로 고구마를 심도록 하여 식량으로 대신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배일사상을 불어넣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었던 점은 그의 애국심의 생활화를 엿보이게 하는 일화들이다.

2) 선생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들

일가 선생이 살아온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의 사회운동을 성공으로 이끌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일가 선생은 그의 인생관에서 “나는 하나님과 흠과 사람, 즉 천·지·인의 연관성을 나의 인생관으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첫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고, 둘째 흠에 의존하여 흠과 깊이 연관된 사업을 해야 하고, 셋째, 서로 믿고 사랑하며 협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⁶⁸⁾ 선생의 삶은 온전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한 삶이었다. 따라서 선생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새벽 미명에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끝을 맺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였고, 민족을 향한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분의 두터운 신앙심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둘째, 일가 선생의 흠의 사업 즉 농업과 농촌에 대한 헌신은 그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할 때 한 연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나는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한국 땅의 농촌에서 출생하여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으며 내 생애를 농사에 바쳐온 평범한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농업의 길을 택한 것은 이 길만이 개인과 나라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이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며 조물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 이들이 희망과 빛을 찾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씨를 뿌리고, 에덴의 동산에 새싹이 날 때까지 그 길잡이로서 선두에 서서 깃발을 흔들고 종을 울려 내 뒤의 사람들을 따라 오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했다⁶⁹⁾.

셋째, 선생은 자신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외에도 그의 가정 안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부부간의 혼연 일체는 물론이고 자녀들과 심지어는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손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일가족 모두의 전폭적인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일가 선생은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66) 김용기, 전계서,1989:114

67) 상계서

68) 김평일 엮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고려원, 1994:19

69) 상계서, pp.76-77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실천하였고, 선생의 사상과 가르침은 다시 그 자녀들과 손 자녀들에게 다시 전해져 내려가면서 전폭적인 지지와 실천을 이끌어 내었다. 일가 선생의 가족간의 인간관계는 신앙과 효도와 사랑과 신뢰와 협동과 헌신과 근로와 절약의 정신을 온 가족이 몸소 실천으로 옮겼다. 선생의 가정에 대한 다음 글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나는 가정적으로도 이 세상의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처한다. 아내는 결혼 초에 이미 나에게 순종을 맹세한 그대로 실행하여 오고, 아이들 또한 나의 말에 절대로 거스르는 법이 없이 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최상의 꽃밭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사에 언제나 자신만만하다. 위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살피 주시고, 가정에서는 온 식구들이 아낌없는 협력을 다하여 주니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다”(김용기).⁷⁰⁾

넷째, 일가 선생은 황무지를 개척하여 옥토로 바꾸고 새로운 농법과 품종으로 농사에 성공하고 농사꾼으로서의 평생을 살았었다. 일가 선생이 농장과 농사에서 성공을 할 수 있기까지 선생은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포기하지 않고 보다 나은 농군과 농군사관생도들을 길러 내기에 혼신을 다하였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농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였고 농업이야말로 직업 중에서 최상의 직업이라고 믿었으며 또한 이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농촌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농사는 수지가 안 맞고, 하기가 힘들며, 대우도 못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 것이야 말로 천만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농사야 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부단히 연구 개량하며 지어야 하는 일로서 애국과 민족역사의 재창조의 길이라고 믿고 실천하였다.

그러나 일가 선생이 농민운동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되기까지 몸소 행하시고 가족들간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이 있었으나 또 하나의 신조 즉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는 가난한 복된 대강의 핵심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난한 농장에서 나온 생산품이라면 그것이 고구마이건 사과이건 농산물 가공품이건, 심지어는 가난한 농군학교의 교육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최선의 품질이란 보증서가 붙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1972년에 어려운 농민의 경제와 복지향상을 위해 가난한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30년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직한 근면과 협동과 헌신을 실천으로 일구어 낸 일가의 사회운동이야 말로 동참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었다.

끝으로, 일가 선생은 가난한 농군학교의 기본 이념을 근로, 봉사, 희생이라 했다. 이 이념을 성경에서 따온 예수님의 정신이라 밝힌 일가 선생은 근로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조물주의 창조도 일이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로마 병정들이 박은 못 자국만 알고, 노동을 해서 생긴 못 자국은 모르니까 세상이 안 따른다”고 했다⁷¹⁾. 선생은 봉사의 정신을 협조와 단결이라 하고 봉사의 정신 역시 조물주의 뜻으로 사람은 원래 혼자서 고립되어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졌다고 하였으며, 희생이란 곧 사랑으로서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살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인간의 사랑중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라 하고 자식 사랑, 이웃 사랑, 동포 사랑, 나라 사랑이 다 희생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인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야말로 참 사랑임을 강조하였다.

70) 김용기, 전계서, 1989:199

71) 상계서, p.325

5. 맺는 말

평생을 농민운동과 국민교육운동 그리고 복민운동에 바쳐 오신 일가 김용기 선생도 한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당신은 선천적으로 지도자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우쭐하는 마음으로 중국의 대륙과 국토의 이 곳 저곳을 배회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떠난 인간으로서의 지도자가 되겠다던 욕망을 버리고 “나는 이후 일체의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 하므로써 겸허하면서도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한 지도자가 되므로써 명실공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후세에 보여 주셨다.

일가선생의 80평생은 그야말로 한 알의 밀알이 흙에 떨어져 몇 십 배 몇 만 배를 결실한 삶이었고, 그분의 일생은 언과 행이 일치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시는 소위 살아있는 농업백과사전이요 도덕교과서이며 가나안 복지의 복민으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모두 누리신 분이였다. 일가 사회운동의 동참자들은 선생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었다. 흔히 평생의 교육에서 우리는 학습자들의 견지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일가의 삶의 장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이들이 현장에서 다시 백견이 불여일행, 즉 백번 보는 것이 한번 실행해 봄만 같지 않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한 것이 가나안 농군학교식의 교수법이였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은 백언불여일행(百言不如一行) 즉 선생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백 마디의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의 역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시리즈로 이어지는 몇 폭의 그림들을 생각할 수 있다. 맨 첫 그림 속에서 우리는 경건히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김용기 선생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인과 아들과 염소를 태운 일엽편주의 작은 보트, 황무지의 개간을 시작한 작은 배 위에 하나 둘씩 동승자들이 늘어나면서 한때는 10가촌의 이상향을 이루며 열심히 배를 저어간다. 이 배가 항해를 계속하면서 그 규모와 배에 싣고 운반하는 내용물들도 다양해진다. 소문도 커지지만 때로 선생은 그 배를 타인들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배로 옮겨 타고 항해를 계속 한다. 그러나 그 어느 때도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은 일가 선생이며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힘을 합하고 삶의 규칙과 삶의 철학을 배우며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 일가의 선박은 드디어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거대한 선박으로 부상하면서 그 선박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여객들을 실어 나르며 복민운동의 기치를 높이 달고 오늘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희망찬 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석, 1998 “국난극복을 위한 일가 김용기 장로의 생애사”, 일가 김용기 선생의 10주기 세미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32-44
- 김성오 역, 2002, “삶을 배우는 학교”, 평생학습의 발원지 덴마크에서 배운다: 대상의 변화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2002 경기도 평생교육축제, 국제학술심포지엄, pp.58-69
- A Grundvig Anthology, Cambridge:James Clarke & Co., 1984
- 김용기, 1980. 나의 한길 60년. 서울: 규장문화사
- _____. 1968.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문화사
- _____. 1982.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서울: 규장문화사
- _____. 1973.贈 젊음에게. 배영사
- _____. 1983. 조국이여 안심하라, 서울: 규장문화사
- _____. 1975.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 김종철, 1999,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 김평일 엮음, 1994,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고려원
- 박진환,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 가나안 농군학교와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 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 일가기념사업재단, 2001:4-77
- 안병욱 외5인, 잘사는 작은 나라, 홍사단출판부, 1984.
- 안병욱, “추천사”, 김평일 엮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나의 아버지 김용기 장로, 고려원 1994
- 오명도, “가난을 몰아내는 군대양성” 일가강좌 개설을 위한 Group Study:제1권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일가기념사업재단 운영위원회 연구교육분과, 2002
- 온누리교회 21세기 청년부, “러시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 : 성 세르기우스를 중심으로”, 「21세기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제 1회 온누리 청년 포럼 자료집, 16-29쪽
- 이만열,1998, “한국농민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일가의 생애”, 일가 김용기 선생의 10주기 세미나 :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6-20
- 이흥탁, 사회학원론 : 사회학의 제 이론 및 방법, 법문사, 1981
- 제이 파리니, 1992,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 도서출판 전원
- 로망 롤랑, 1973, 「톨스토이의 생활과 문학」, 정음사
- 한규무, 1998, “복민운동의 등장과 영향”, 일가 김용기 선생의 10주기 세미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일가기념사업재단, pp.21-31
-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주식회사 삼성이데아, 1988
- Goreham, Gary A. ed. 1997. *Encyclopedia of rural America: The land and people. Volume 2*. Santa Barbara, CA: ABC-CLIO Inc.
- Hansen, Helge Bekke, 2002, "Ulden Folk High School", 2002 경기도평생학습축제 국제 학술심포지엄, 광명시 평생학습원, p.70
- Hansen, Helge Bekke, 2002, "The Danish Folkehojskole" 2002 경기도평생학습축제 국제학술심포지엄 강연요약집, .광명시 평생학습원.
- Tarrow, Sidney.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UK: Canmbridge University Press.

◆ 사회운동부분 토론 자료

일가운동의 과제 “일가운동의 특성과 성공요인”- 그 이후

이상오(주성대학 교수)

꼭 8년 전 이맘 때 쯤 귀국과 함께 농군학교에 들르면서 가나안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필자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 심지어 토론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저의 초심과는 달리 일가 연구와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지난 해에 한국성인교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일가 선생님에 대해서 발표하기 위해 주변에 많지 않은 자료들을 주워 모으면서 일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는 또 중단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당시 발표된 논문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근대한국성인교육사상, 2000, 원미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일가 선생님 부분을 맡아 다른 분들이 맡았던 안창호, 서재필, 김활란, 임영신 제분 등과 함께 김용기라는 이름 석자를 근대한국성인교육사상가의 중 프런티어로 등재시키는 소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고백 하나를 한다면, 실제로 저는 유학 가기 전까지 석사과정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도 일가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독일 유학 중 어느 날 대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날짜 지난 한국신문을 뒤적이다가 한국일보에 실린 일가 선생님을 읽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떨릴 정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 학교교육을 그만하고 성인교육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있었던 저는 당시 공교롭게도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목사와 그의 국민고등학교 운동에 대해서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가 선생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귀국하면 가장 먼저 농군학교에 가서 무조건 실습을 해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무사히 박사학위까지 마치게 되었으며, 귀국 후 마음먹은 대로 비행기 여독도 채 가시기 전에 농군학교에 무작정 들렀습니다. 매우 운이 좋게도 그 날 저는 김종일 이사장님을 직접 뵈울 수 있었으며 김찬란 처장님도 같이 뵈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혀 일면식도 없던 저를 맑게 맞아 주시던 가나안 가족들에 대한 첫 인상은 제가 살면서 가장 오래 간직하고 싶은 한 장의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추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한 자리에서 사적 기억을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이럴 수밖에 없는 충동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인간이면 누구에게도 소중한 감정을 간직하고 이러한 감상을 서로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기분이지요. 실은 제가 이렇게 길게 너스레를 떠는 이면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또한 삶을 같이 하신 많은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께는 전혀 낯선 의외의 인물일 수 있는 제가 오늘 토론을 한답시고 앞에 나와서 아장거리며 까불거리는 꼬락서니에 대해 무척 못 마땅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조금이나마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많이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자 교수님께서 논문 서두에 한달 만에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논문 발표를 쑥스러움으로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토론자는 더욱 쑥스럽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발표자의 원고를 읽으면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김지자 교수님께서 연륜과 혜안이 계셔서 그런지 약관 한달 만에 “하나의 세계”와 같은 일가 선생의 일대기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에세이 같은 논문으로 뽑아 내실 수 있음에 짐짓 놀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군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경험한 것으로부터 나온 발표자의 산지식이라는 기초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에서 발표자께서는 ‘사회운동’과 ‘사회운동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면서, 일가사회운동의 특징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가 선생께서 평생 이론 업적이 너무 많고 또한 무척 다양하며 심지어 모든 업적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항상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길고 어려운 작업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중요한 일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는 그의 심오한 일생을 너무 단순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요약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표자의 논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책자들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발표자의 요약 작업은 주옥(珠玉) 같은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가농민운동, 일가교육운동, 일가북민운동.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엑기스였다고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습심리학자이며 교육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Bruner 교수는 “지식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학습자이며 교사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일에 능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발표자께서 뽑아 내신 세 가지 운동의 영역은 독자들로 하여금 일가 선생의 일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지식의 구조”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발표자는 결론으로서도 일가운동의 성공요인을 크게 두 가지 즉 선생의 생활철학과 선생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준 여건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다섯 요소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해 볼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을 굳이 말한다면, 가나안 북민운동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실제로 토론자는 북민운동이라는 개념도 일가 선생이 강조하신 특수한 용어이고, 또한 북민사상 하에 일가 선생의 일생이 거의 농축되어 있으며 사회운동으로서의 핵심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토론자는 발표자의 관점에 공감하며, 그래도 토론에 임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발표 논문에 대한 지적이나 논쟁보다는, 발표자께서 결론에서 요약하신 “일가사회운동의 성공요인”에 이어서, 앞으로도 가나안 농군학교가 소위 김용기 이후 즉 “Post-김용기 시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친한 소견이나마 조금 늘어놓으면서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대신할까 합니다.

발표자는 일가사회운동이 일가 시대에 성공한 요인으로서, 첫째, 선생 자신의 철저한 생활철학 즉 “철저한 농사꾼”과 “철저한 애국자”의 철학 덕분이었으며, 둘째, 선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천·지·인 연계 사랑의 사상, 농업사랑, 가족 사랑 및 효 사상, 개척정신과 정신개척의 지식인 농사꾼 사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근로·회생·봉사 사상 등이 그것들입니다. 발표자는 이들 성공요인들로 인하여 일가 선생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모두 성공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발표자는 전반

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일가운동은 간디의 무저항주의 운동이나 톨스토이의 농촌운동처럼 조용하고 영향력이 큰 운동으로 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은 일가사회운동의 큰 장점이자 커다란 매력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수면 위에 평온하게 떠 있는 것 같은 오리들은 물밑에서는 쉬지 않고 발을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일가사회운동은 일가 선생 이후에도 마치 오리들의 발처럼 보이는 얇은 곳에서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지금처럼 참으로 암울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 이제 다시 가나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보다 큰 등불로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어느 사회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천박한 근거로 인하여 또는 특정한 이해집단이나 선입견을 대변하다 보니 이론이나 이상과는 달리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진행되는 사회운동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아무나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는 꼴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사회운동으로 사회는 더욱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많고...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사회운동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가나안 운동에서 그 원류를 찾고 싶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가운동이 일가 선생을 계승하면서도 앞으로도 소위 성공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역할을 해 내기 위해서는, 첫째, 일가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일가사회운동에 대한 투철한 철학 즉 “오늘날에도 일가사회운동이 왜 필요하며, 또 그렇다면 현대적 의미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철학적 이정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제반 환경과 조건을 갖추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제반 환경과 여건이란 일가 선생의 행로를 이탈하거나 심지어 다른 영역의 개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일가 선생님의 뉘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일가사회운동으로서도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이미 일가 선생님께서 가나안이 이상적으로 가야할 모든 방향과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가 선생님이 특출 나고 위대하신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가 기념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후손들은 일가 선생님이 다져 놓은 맥락을 그대로 현실에 맞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일가사회운동의 흐름이며 가치 있는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테면, 일가 선생께서 강조하신 하나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천·지·인 연계 사랑의 사상은 오늘날 “생태계 사랑”의 사상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둘째, 가족 사랑 및 효 사상은 지금도 농군학교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지만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삶=교육]이라는 가장 넓은 의미의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셋째, 일가 선생의 농업사랑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대되는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농업인공동체 및 농업가정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지의 재활에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며, 넷째, 개척정신과 정신개척의 능력을 가진 최고 지식인 농사꾼 사상은 앞에서 언급한 농업사랑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농군학교가 “유기농 대학원(가칭)” 같은 한국에서 최고의 지식인들과 지성인들이 모여드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면서 “최고 지성인으로서의 농민상”을 양성하는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일가 선생께서 몸소 실천한 근로·희생·봉사의 생활은 과거에 선생께서 10가구의 봉안이상촌을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 근로

하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로 복민했던 것처럼 현대적 의미에서 일종의 농촌복지타운으로서의 이상촌 건설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유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범세계적으로 헤드스타트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 수리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면, 일가재단은 이 땅에서 해체되는 위기에 있는 농촌마을 곳곳에서 이상촌을 주도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김용기 장로께서 평생동안 기꺼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러한 일은 점차 중국, 필리핀 등 제3세계에서도 복음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꾸미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농군학교를 거쳐 나간 수많은 가난한 가족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 인간이 제대로 사는 일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교육하는 일이 “삶”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동시에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민공동체를 기반으로 가난한사회운동이 결실을 맺을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회운동부분 토론 자료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

전혜정(호서대학교 교수)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에 대한 김지자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저는 일가 선생을 뵈어도 없는, 어쩌면 일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 제가 왜 선생의 사상과 삶에 가슴 뜨거워하며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게 되었을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가 선생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업적과 일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주신 발표자 덕분에 많은 일가 사회운동의 동참자들이 일가 선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일가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지표를 찾는 데에 큰 도움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에 대한 김지자 교수님의 발표 자료를 읽고 가장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던 부분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앞장선 ‘사회운동의 지도자’로서의 김용기 장로님의 면모와 앞으로 어떻게 일가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올바르게 전수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진정 일가 선생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를 다듬어 주고, 우리에게 최선의 비전으로 나가게 해주 시고자 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일가 선생을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는 리더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고 일가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 나열된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신앙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일가 선생은 하나님 주신 소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셨습니다. 언(言)과 행(行)을 분리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사셨던 김용기 장로님의 ‘신앙’과 ‘실천’은 선생을 다른 지도자들과 구분되어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는 두 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가 선생이 참 리더가 되게 했던 또 다른 요인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쪼먹는 많은 요소들, 즉 ‘리더십 킬러’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은 참 리더로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지도자로서의 제역할을 수행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하는 혹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안타깝게도 중도에 뜻을 접게 하는 요소들에는 타성에 젖는 것, 게으름과 교만, 도덕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운동의 리더들이 사회 변화와 개조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비전이 그 시스템에 의해 제한을 받고 그래서 결국, 초심과는 달리 타성에 젖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타성이 굳어져 모든 것을 교과서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에 체질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운동조직의 리더들은 교과서를 성전화하여 늘 이런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변화를 금기시하여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 본 뒤에도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죽어

가는 개구리임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한훈, 2000). 그러나 끊임없는 개혁 정신으로 평생을 사신 선생은 결코 따뜻한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분이였기에 선생의 운동은 지금까지 선생을 아끼고 존경해오던 동지와 후손들에 의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운동의 리더로서의 생명을 앗아가는 또 다른 요인은 게으름과 교만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자신을 발전·성장시키고자 하는데 있어서의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 능력이 너무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게으름에 빠져 꾸준한 자기 개발과 탐구에 소홀하기 쉽고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운동의 지도자가 공부하고 깨우치기를 포기하면,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에 도취되어 약한 이웃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오만해지면, 그의 운명은 마치 시한 폭탄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일체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은 안병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에 겹손의 띠를 두르심으로써, 게으름과 교만이라는 리더십 킬러로부터 자신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생명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또 다른 위험요인입니다. 현인들은 리더들에게 돈과 권력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러한 유혹은 어느 정도 입지에 올랐을 때 더욱 무섭게 공격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욕심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하며, 욕심은 또한 더 가지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리려 하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 쥐어진 성서와 머리에 쓰여진 애국의 면류관이 사욕의 무덤으로부터 선생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의 이러한 도덕적 무장은 일가 선생의 인성 교육 운동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깊은 인격적 성숙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의 내면 세계는 고갈되어 황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숙한 인격의 모델, 황량한 내면을 채워 줄 가치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목숨을 걸 대상”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일가 선생의 업적과 실천적 모범은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에게 휘날리는 깃발과 헌신할 수 있는 가치의 대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 발표자, 토론자 약력

■ 종교개혁부분 ■

발표자 - 손봉호 교수

■ 학 력

- 196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65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신학석사)
- 1968 화란 자유대학교 철학부(준박사)
- 1972 화란 자유대학교 철학부 졸업(철학박사)

■ 경 력

- 1973 - 1983년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
- 1983 - 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 1990 - 1999년 한국 칸트철학연구회 회장
- 1991 - 현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 1994 - 1997년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1996 - 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1995 - 현 세계밀알연합회 이사장
- 1997 - 현 한국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 1998 - 현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 1999 - 현 국제학생회(ISF) 이사장
- 2000 - 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이사장

토론자 - 고재성 박사

■ 학 력

- 1985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92 독일 튀빙겐대학교 정치학/사회학 석사
- 1995 독일 튀빙겐대학교 사회학 박사

■ 경 력

- 1996 - 현 제2가나안농군학교 기획실
- 2000 - 현 장로회신학교 신대원 3학년 재학
- 현 길가는 교회 교육전도사

토론자 - 정명운 목사

■ 학 력

1986 고신대학교 졸업
1989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1996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and seminary(D.Min)

■ 경 력

고신대학교 교목실
총회교육부 대표간사
청소년전문신학교 교수
현 반송교회 담임목사

■ 사회운동부분 ■

발표자 - 김지자 교수

■ 학 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문학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석사
국립 필리핀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개발 전공 및
발전커뮤니케이션 부전공, 철학박사
미국 오크라호마 대학교 켈로그 재단 연구교수(1년)
미국 노스다코다 주립대학교 교환교수 (1년)

■ 경 력

동아일보사의 방송뉴스부 및 소년동아부 기자
미국인구협회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및 국제인구문제응용연구위원(ICARP)
가족계획연구원(현 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 고려대, 서울여대 강사
한국결스카우트 서울특별시 연맹장
한국여성사회교육회 초대회장 및 이사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농협 부녀회 및 농촌 생활 문화분과 자문위원
적십자사 청소년부 자문위원
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상오 교수

■ 학 력

연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독일 튀빙겐 대학교 사회행동과학부 졸업(사회과학 박사)

■ 경 력

충북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자문위원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전문위원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부관장

(재)청예단 이사

(사) 청소년언어교류협회 이사

현 주성대학 사회문화학부 교수

토론자 - 전해정 교수

■ 학 력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석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수료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Ph.D. 성인발달 및 노화 전공)

■ 경 력

아세아 연합 신학 대학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일가기념사업재단 전문위원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